

建築空間形態의 理論과 變遷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heories and Changes of Architectural Spatial Form

이기승*/ Rhee, Ki-Syng

윤도근**/ Yoon, Do-Keun

Abstract

The spatial form of architecture in the same era has its own common characteristic spatial form. This study is based on this proposition and is focused on how architectural spatial forms have been changed up to now after modern ages(from

the beginnig of 1900s to the early days of 1990s : from early modern age, golden modern age, post modern, late modern architecture to recent experimental trend) and how architectural theories of spatial forms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is predicted.

키워드 : 건축공간, 공간-형태, 근대건축, 후기 근대건축, 탈 근대건축

1. 서론

건축은 공간과 형태라는 가지적 구조체로서 실제로 구현된다. 인간은 역사 이래로 삶의 거의 전반을 건축환경속에서 영위해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건축환경을 포함하는 시대의 현상은 당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었다고 하는, 그리고 아직도 인간본연이라는 콘텍스트에 있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있는 확실하고도 엄연한 한 사실들이 일반적인 문화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반면 공간과 형태로 조합 구축된 건축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시대상황이나 건축가를 포함하는 세계의 어떤 보편적 문화상황보다도 항상 철학적이고도 예술적인 선지적 의지 즉, 건축적 창조 정신에서 제안되고 구축되어 왔었다고 하는 주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건축의 공간-형태는 한 시대에 있어서, 각 시대별로 본다면 전대에 비해 변화된, 거의 비슷한 공통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의 공간과 형태는 단순하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이상적으로 구현해보려는 최고의 시대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사고와 이론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공간-형태'의 이해를 통해서 건축공간-형태에 관여된 건축형성의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은 건축을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간-형태는 건축 프로그램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간-형태가 기능을 생성시키거나 발견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자율성과 함께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근대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건축을 보는 관점을 공간-형태에 초점을 두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는 공간-형태이론의 변천과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건축공간-형태이론의 추이를 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이후 현대까지의 건축에 있어서 공간-형태의 변천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 및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00년 이후 초기의 근대로부터 전성기 근대, 탈 근대건축(Post Modern), 후기 근대건축(Late Modern)에 연관된 1990년대 초까지를 범위로 하며,

둘째, 건축공간-형태의 변천과정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론들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건축공간-형태이론의 변천에 대한 분석을 재조명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영향하의 건축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 시기별로 발생, 소멸, 진화된 여러 건축의 공간형태이론들을 각각의 시대를 관류하고 있는 형성인자들과 함께 살펴봄, 이러한 형성인자를 배경으로 하는 궁극적 발생인자, 즉 공간-형태의 공통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공간-형태의 이해와 이론에 관한 고찰

2-1. 건축공간 및 형태이론에 대한 고찰

2-1-1. 건축공간이론

20세기초에 물리학자들에 의한 원자적 실재의 발견은 공간¹⁾, 시간,

1) Europe에서는 「한정된 공간」으로서의 Solid에 대한 Void나 Raum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공간의식은 객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3차원의 실재하는 실체적 현상공간을 뜻함. Space는 개방성이 풍부하고 한정도가 거의 없는 공간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 정회원,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명예회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물질, 대상, 인과, 생명등과 같은 개념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공간을 모든 장소의 총화, 즉 방향과 질적 특성을 갖춘 역동적인 장(field)으로 파악하여 오늘날의 공간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나 유클리드(Euclid, 또는 Eukleides) 등은 기하학에 기초를 두어 공간을 무한하고 등질적인 기본차원의 하나로 보았으며, 자연전체를 물체와 물체가 장소를 점하거나 그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허공이라는 두가지에 기본을 둔 것으로 파악한 루크레티우스(Luc-retius, B.C. 94~55년경)의 개념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²⁾ 공간에 대한 칸트(Kant)의 철학적 개념은 공간은 경험적 실재성과 선험적(a priori) 관념성³⁾이었고, 17세기에 이르러 데카르트(Descartes)에 의해 직교좌표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물리적 공간을 충실하게 묘사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의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하여 소멸되었다.⁵⁾

슐츠(C. N-Schulz)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과 인간에 의해 창안된 추상적인 수학적공간의 개념들은, 전체적 경험을 정량화한 결과, 추상적 제관계의 인식적 세계가 얻어지기는 하였으나 거의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관련을 갖지 못하고 환경과의 정서적 관계라는 실재에 대한 어떤 측면은 생기를 잃게 되었다. 그는 일상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환경과의 정서적 관계인 지각의 복합적 과정을 심리학적 체계인 Gestalt심리학과 피아제(J. Piaget)의 schemata개념을 채용하여 심리적·개인적 단계인 자기중심적이며 불안정한 직접적 정위로서의 지각적 공간과 사회적·문화적 전체로서 보다 안정된 환경이미지를 형성하는 실존적 공간을 구별하고 5가지의 공간개념, 즉 ①실용적(또는 기하학적) 공간, ②지각적 공간, ③실존적 공간, ④인식적(건축적 또는 예술적) 공간, ⑤추상적(미학적) 공간으로 공간개념을 분류⁶⁾하고 있다.

공간은 일반적으로 건축적 공간개념의 맥락에서 인위적 공간과 자연적 공간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모든 공간은 이미 형성된 공간속에 그 자체가 실존하는 것⁷⁾으로 물리적·비물질적 존재가 무형의 공간

속에서 정량적·불가지적으로 상호관계를 역동적으로 유지하거나 점함으로써 구체화되고 개념화되어 인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있어서 공간개념의 주체는 인간이다.

슐츠는 건축적 공간이 인간의 개인적·공적 세계에 관한 schemata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적 공간이란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따라서 이러한 건축적 공간은 어떤 구조적 유동성을 통함으로써 인간세계에 대한 보다 높은 차원의 대상을 중개해 주는 상징형식의 하나로 본다.⁹⁾ 그러므로 건축적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향된 생활형태를 환경속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건축공간은 문화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정신활동의 궁극원리인 상징기능에 의하여 창조되고 존재하고 발전되므로 상징형식의 공간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¹⁰⁾

H. Wiffin에 의하면 공간의 창조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건축사는 공간개념의 변천사임을 강조하였다.¹¹⁾ 한편 S. Giedion은 공간의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미술사적 고증에 의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별하였다.¹²⁾

첫 단계는 이집트와 그리스의 건축발달을 맺어주는 여러 가지 불륨으로부터 발생하는 힘, 불륨간의 관계 및 그 상호작용과의 관련으로 나타나며, 공간의 성격을 소극적이며 순수한 유클리드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로마시대(Pantheon)에서 18세기말까지의 내부공간과 이에 따르는 Vault의 문제를 중시한 개념으로, 이 단계에서 건축공간의 개념은 내부공간개념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비로소 인간에 대한 건축공간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관점의 변화에 의한 투시도법과의 단계로서 건축적 공간의 외측과 내측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공간개념의 역사임과 동시에 시간성, 즉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내부공간은 건축공간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1-2. 건축형태이론에 대한 일반적 고찰

19세기 이후 건축가들은 지각이론에 근거하여 건축형태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게시탈트 이론(Gestalt Theory)의 「장(field)이론」을 실제 건축형태표현에 적용시켜 왔다. Rudolf Arnheim은 이러한 형태표현방법들을 건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견해나 전일주의(全一主義, holism)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태표현에 있어 지각이론에 의해 건축형태의 분석방법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Hans Sedlmayr이었으며, Christian Norberg - Schulz 역시 지각이론을 바탕으로 건축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7)老子, 老子·莊子, 張基權譯, 三省出版社, 1985, p.27, p.119.

8)C. N-Schulz, op. cit., p.23.

9)문화현상의 일부인 건축은 곧 상징형식인 것으로 본다.

C. N-Schulz, Ibid., p.106.

10)Ernst Cassier, An Essays on Man(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편역, 훈복문화사 1969, p.44 및 주요한,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1980, p.40을 참조할 것.

11)Sigmund Giedion, 'Spe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ition, Harvard Univ. Press, 1967, p.1.

12)S. Giedion, 'The Eternal Present: The Beginnings of Architecture', The Clarendon Press, Oxford, 1964, p.522.

2)C. N-Schulz,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산업도서출판공사, 1982, pp.15~16.

3)*Kant의 공간에 대한 형이상학적해명은

- 1.공간은 외적경험에서 끌어낸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의 표상은 외적현상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통하여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외적경험 그 자체가 공간의 표상을 통하여만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 2.모든 외적직관의 근거에 놓여 있는 필연적인 선천적 표상이며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상은 전연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 3.공간은 물질만의 관계에 관한 분별적 개념이 아니며 보편적 개념도 아니며 하나의 순수직관이며,
- 4.공간은 무한한 양으로 표상되며 공간의 근원적 표상은 실천적 직관이나 개념이 아니다.

I.Kant, 순수이성비판, 전원배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82, pp.82~84.

4)C.N-Schulz, op. cit., p.16.

5)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이성범 외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79, p.78

*상대성이론은 삼차원 공간내의 수많은 물체덩어리라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사차원적인 공간-시간내의 일련의 사건을 대치시켰다(C. N-Schulz, op. cit., p.17).

6)C. N-Schulz, op. cit, pp.18~22.

슐츠의 의문은 건축이론 뿐 만 아니라 건축사의 중심문제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건축은 왜 특정한 형태를 취하는가?' 라는 것이다. 통상 이러한 질문은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양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모방하기 위한 구분의 수단이 아니며, 양식은 형태요소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체계를 가리키는 형태언어이지 기능이나 공간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류된 개념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건축형태에 대한 연구는 근대에 이르러 건축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건축공간론의 연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19세기 이후 독일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표 1〉 주요 이론가들의 형태개념

이론가	건축형태의 관점	건축형태의 개념
리 글 A. Riegl	- 지각이론 중시 - 건축 형태의 문제점 제시 - 회화적	- 지각의 범주로서 축적적, 시각적 이론의 도입
빌프린 H. Wölfflin	-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회화 - 예술에 내재한 형태적 차이점 묘사 - 물체형태, 가시형태 등으로 구분	- 공간적 측면의 무시 - 2차원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프랑클 P. Frankl	- 르네상스 이후 신고전주의까지 건축형태를 공간형태, 물체형태, 가시형태 등으로 구분	- 공간세포 및 세포형태와 같은 어휘들을 도입

2-2. 건축공간-형태론

2-2-1. 건축의 공간-형태 이론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는 중력과 강성의 투쟁이 건축의 유일한 미적요소라고 하면서 건축미를 정의 하고 있다. 또한 티어쉬는 [건축에 있어서의 비례]에서 건축미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데히오는 비례를 형식원리가 아니라 공간원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피히터는 [공간기하학과 면의 비례]에서 공간기하학은 비례가 단순히 면의 원리가 아니라 공간의 원리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판테온(Pantheon)의 예에서 보여주었다. 한편, 근대의 건축미학이 면의 원리에서 공간의 원리로 이행된 데는 쟈퍼의 영향이 크다. 그는 폭·넓이·깊이라는 공간 혹은 입체의 3차원에 대칭성·비례·방향성이라는 3가지 형식미의 범주를 대응시키고 있다.

비쉬(Visher)는 건축조형의 범칙으로서 구성·비례·분할·대칭성과 같은 형식미의 범주를 이끌어 내고 있는데, 모든 범주는 그대로 유기적 생명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한 빌프린은 이들 범주에 심적 표출가치를 인정하였다.

부르크하르트(J. Burckhardt)는 [이태리 르네상스의 역사]에서 모든 관계의 조화가 공간미의 일체의 것으로 생겼다고 주장하였으며, 르 꼬르뷔지에나 타우트(B. Taut)에 있어서도 건축은 조화된 비례의 예술이며, 그 조화된 것에 대한 특수한 감각은 오성으로 파악되지 않고 우주에서 얻는다는 것이었다.

2-2-2. 건축공간-형태 개념의 제양상

1. 공간-형태론

Frankl의 비평체계는 공간적 형태(Spatial form), 물질적 형태(Corporeal form), 시각적 형태(Visible form), 목적의지(Purposive

intention)라는 네 가지 형태의 범주로 구성되고 있다.¹³⁾ 따라서 그가 말하는 공간, 매스, 빛, 목적이라는 네 가지 주요 요소를 간략하게 평가해봄으로써,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간-형태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간적 형태 : 형태의 양상은 공간적 부가(spatial addition)와 공간적 분할(spatial division)이라는 반대개념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프랑클에 있어서 부가는 공간적 실제의 명확한 구분을 의미하고 있고, 분할은 전체에 대한 공간 부분들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2) 물질적 형태의 양상은 힘의 발생(또는 중심)과 힘의 전달(transmitter)(또는 경로)이라는 양극성에 의해서 조절된다.

(3) 시각적 형태 : 관찰자가 전체를 관망하기 위해 다수의 시점을 취해야 하는 시각적 형태를 '다수의 이미지와 같은' 형으로 칭할 수 있다.

(4) 목적의지 : 마지막으로 형태의 네 번째 양상은 '구심적-원심적'인 힘의 대립과 '개성의 자유(freedom of personality)'와 '개성의 속박(constraint of personality)'이라는 대립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대립개념들을 사용하면서 프랑클은 건축주와 사용자의 정신상태 속에 공간적 조직을 연결시켰다.

2. 공간-형태개념의 제양상

(1)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공간-형태개념

건축형태의 무형적 실체를 건축의 진정한 근원으로 인정한 플라톤(Platon)은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며 가시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 . .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불과 흙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물과 공기를 두어 균형을 잡았다. . . . 신은 가시적이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전체로 세계를 창조하였다.' 라 말했다. 플라톤의 공간은 노자의 사교와 같은 어떤 비실재적인 존재의 요소라기보다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비례에 따라 형성된 우주의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즉, 형태와 형태사이의 간격이나 틈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2) 철학에서의 공간형태개념

칸트의 공간개념은 단지 사교의 세계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반면 헤겔은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시기가 가장높은 위계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였다. 헤겔의 주장에 의해 건축은 가장 저급한 예술로 되었고 당시 건축가들은 두 가지 대안을 마련 했다. 하나는 건축은 종합예술이라 주장했으며 다른 하나는 공간이라는 형태의 내적 내용물의 표현으로 형태를 해석하여 건축이 지닌 물질적 한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3) 건축에서의 공간-형태개념

그로피우스(W. Gropius)는 영혼과 지성과 감각의 동시적 종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간형태적 실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했다.

① 비물질적 공간 ② 수학적 공간 ③ 물리적 공간 ④ 예술적 공간

3. 공간-형태개념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에 있어서 공간-형태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다.

13) Paul Frank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건축형태의 원리, 김광현 번역, 기문당, 1990.

- ① 공간-형태개념은 근대건축의 고유개념이다.
- ② 공간-형태개념은 건축이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위치를 정립하게 했다.
- ③ 공간-형태개념은 양식에 대해 비물질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19세기 절충주의를 몰아내었다.
- ④ 공간-형태개념은 자연과학과 예술전반에 팽배했던 시대정신의 발현이었지, 물리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한 풍조로 역시 공간의 적극적인 인식이 감정이입이라는 인식적 메카니즘에 따라 형태도 중요성을 갖는다는 자각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근대건축의 공간-형태이론의 변천과 특성

3-1. 근대건축의 형성배경

3-1-1. 초기근대건축의 사회 문화사적 배경

초기 근대건축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인자는 산업혁명과 막스 베버(Max Weber)이래로 서구철학의 근간을 이루은 합리화란 개념이었다.

현대화 또는 합리화의 과정은 무지나 종교적 편견 및 미신, 빈곤이나 억압된 계급사회 질서등으로 부티의 인간적 해방이었다. 그러나 이런 합리화 과정은 단지 부르조아계급(bourgeoisie)에게만 부여된 혜택으로 노동자 계급은 전대미문의 최저의 자존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처참함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짝트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문화, 예술 패러다임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다.

순수예술이나 정치이론과는 대조적으로 디자인은, 예를 들자면, 기술의 진보성, 기계에 대한 찬양이나, 현재는 과거와 급격히 단절되었다는 주장같은, 모더니즘이 포기한 사상을 물질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3-1-2. 건축사적 배경

국제주의 양식으로 대변되는 근대건축의 모더니즘은 1928년의 C.I.A.M.의 결성과 더불어 그 전성기를 맞아 매우 정교한 규칙과 정의의 가지고 건축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1956년 C.I.A.M.의 붕괴로 그 역사의 무대에서 힘을 잃었다.

1) 건축외적인 요인

- 기업의 합동 독점에 근거한 자본주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단계: 기술과 그 규모의 발전 확대
- 구지배계급의 몰락과 근로대중세력의 대두: 사회주의 정신과 정책
- 세계대전후의 국제적 제휴로 평화재건으로 인한 국제주의 대두
- 산업혁명: 생산방식의 변화와 대량생산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재료의 발견
- 콘크리트, 철, 유리
- 시민혁명: 새로운 사회적 기능에 대한 요구. 역사와 같은 시민·공공용도의 건축기능.
- 새로운 사회계급: 자본가의 대두
- 도시와 교통의 발달과 인구 팽창
- 과학혁명:

2) 건축내적 요인

- 양식적 취급이나 장식의 불필요
- 건축의 목적에 따른 기능, 효율, 필요가 건축의 선결요인
- 기계적 생산방식이 필연적 추세라는 인식
- 근대공업의 뒷받침을 받는 공업적 기술적 합리적 정신
 - 구조- 박판 슬라브, 셸, 라멘구조, 곡면이론
 - 재료- 합판, 유리, 텍스
 - 설비에 대한 기초적 연구- 음향, 채광, 조명, 환기
- 새로운 도시나 생활상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사회경제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으로 구상하는 것을 건축의 중심과제로 삼음: 도시설계와 주택문제
- 새로운 재료, 기술에 의한 순수한 표현형식 추구- 단순매스와 평면, 투명한 면의 구성
- 각국 건축가들의 연대의식과 그 운동의 국제적 성격: 그로피우스의 국제주의 건축제창(1925), 근대건축 국제회의(C.I.A.M., 1928) 결성

3-2. 근대건축의 공간-형태이론 변천과 특성

3-2-1. 초기근대의 건축공간-형태 변천

앞에서와 같은 흐름을 갖고 대두한 초기 근대건축은 C.I.A.M 결성 이전까지 다양한 流派의 건축운동들이 암중모색되고 실험되던 시기였는 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 아르누보(Art Nouveau), 2. 세세션(Seccession), 3. 독일공작연맹(Deutch Werkbund), 4. 미래파(Futurism), 5. 표현파(Expressionism), 6. 구성주의(Constructivism), 7. 데스틸(De Stijl), 8. 바우하우스(Bauhaus) 운동, 9. 순수파(Purism)의 활동이다.

또한 C.I.A.M 이후로 부터 전성기 근대 건축공간-형태 변천은,

1. Team , 2. 아키그램(Archigram), 3. 메타볼리즘(Metabolism), 4. 기능주의(Functionalism), 5. 新野獸派 (The New Brutalism), 6. 형태주의의 유포에 의하여 주도 되었다.

3-2-2. 근대건축의 공간-형태이론적 특성

근대의 비평가들과 건축가들은 건축에 있어서 양식의 존재를 거부하였으며, 모더니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된 건축공간-형태는 기능을 수용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고, 구조는 그 자체로서 솔직히 표현되고 있으며 가능한한 항상 표준화된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부가된 장식이나 세부표현을 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건축의 공간-형태 표현상의 일반 원리는 첫째로, 형태보다 기능이 앞선 건축공간-형태이고, 둘째로, 구조적 의미에 있어서의 건축공간-형태이며, 셋째로, 부가된 장식회피의 건축공간-형태로 파악되는 것이다

4. 현대건축의 공간-형태이론의 변천과 특성

4-1. 현대건축의 형성배경과 발전과정

오늘날 우리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있다.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실

업, 에너지 위기, 오염과 환경 재해, 폭력과 범죄의 증가 추세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인식의 위기이며 이 위기는 1920년대 물리학의 위기와 같이 데카르트-뉴턴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무리에서 연유된 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역사주의적인 입장에 선 탈 근대주의자들의 건축은 투명성에서 불투명성으로, 유동적 공간에서 정적인 공간으로,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불분명한 입구처리에서 분명한 입구처리로, 중심성의 부정에서 중심성의 회복등으로 그 관심의 초점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대중 문화적 현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조형의 원리를 삼아야 한다는 시각은 R.Venturi의 '건축의 복잡과 대립(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벤츄리의 '건축의 복잡과 대립(1966)' 이후 모든 탈 근대의 옹호서적들 - 건축은 쟁크스의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1977)', 문화비평 쪽으로는 료파르(Jean Francois Lyotard)의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 등 - 은 근대주의의 이해자체를 왜곡과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갔고, 탈 근대주의의 공통된 점은 그것들이 한결같이 다양한 이론들을 먼저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반대하려고 하는 근대주의를 대체시키려는 또 하나의 권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대주의의 극복이 단지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탈 근대주의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이한 방식의 절충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건축가의 창작의지가 단순한 플라쥬와 병치의 수법만으로 가능했으며, 탈 근대주의는 곧 부분적 고전요소들의 인용이라는 것과 동등시 되었다.

탈 근대 건축에서는 표현의 애매모호성과 불명료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진보된 기술과 과거의 양식을 동시에 수용하며, 근대적인 것과 토착적인 것, 그리고 세련되고 귀족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을 동시에 수용하고 통합시키는 건축의 양식으로 해석한다. 또한 수사학적(rhetoric)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건축에서의 기능성과 상징성을 모두 수용하는 건축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많은 건축가와 이론가들이 탈 근대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Alexander Tzonis와 Peter Blake는 탈 근대건축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데, 벤츄리가 표방하는 건축형태구성의 논리를 두가지의 측면, 즉 모순과 무질서의 회화성(picturesqueness), 그리고 재미 또는 즐거움을 부여하는 매너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 근대건축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의 기능이 대중사회로부터 유리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구심점은 결국 근대주의라는 공통분모로 귀속되고 있으며 비평사가들에 따라서 탈(포스트:Post), 후기(레이트:Late), 신(네오:Neo) 등의 수식어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근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건축의 새로운 양상들을 양식사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서 파생된 수식어들은 근대주의에 대한 의도적인 평가절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절하는 근대주의의 복잡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능주의 건축이 지닌 문제점들로 이루어져 있다.¹⁴⁾

하인리히 클로츠(Heinrich Klotz)의 비평들과 좀더 구체적으로 해

체주의의 배경까지를 살펴 보면 신 근대(네오모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4-2. 현대건축의 경향 분류

우선 Robert Venturi는 1977년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의 제 2판에서 "나는 '순수한 것' 보다는 혼성품이, '깨끗한 것' 보다는 복합적인 것이, '정형적인 것' 보다는 비정형의 것이, 비개성적이며 뒤떨어지고 흥미로운 동시에 지루함을 주는 '명확한 것' 보다는 애매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근대건축이 준 부정적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¹⁵⁾

다시말해서 근대건축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면들을 건축인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C.I.A.M.의 붕괴이후의 건축들은 이러한 근대건축이 보여준 부정적인 면들을 일소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가득찼던 것이다.

이러한 현대건축을 조명해 보려는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나타났다. Kenneth Frampton은 근대주의 이후 건축의 양상을 대중주의(Populism), 신헌리주의(Neo-Rationalism), 지역주의(Regionalism), 구조주의(Structuralism), 신평업주의(Neo-Productivism) 등 5가지의 흐름(이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⁶⁾

Charles Jencks는 현대건축을 크게 탈 근대(Post-Modern)건축과 후기 근대(Late-Modern)건축으로 구별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근대건축의 이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부류와 근대 건축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이념을 초월하는 새로운 것을 모색하려는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이와함께 1960년이후 건축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 근대(Post-Modern)건축과 후기 근대(Late-Modern)건축이 지니는 가치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앞서 이야기한, Charles Jencks와 Kenneth Frampton, 이 두사람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탈 근대건축과 후기 근대건축의 이론을 전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공간-형태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3. 탈 근대 건축과 작품분석

탈 근대(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이란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후에는 Arnold Toynbee에 의해서 사용된바 있고, 1950년대 말과 60년대의 미국 문화비평계에 대두되어 Irving Howe 같은 사람은 [대중사회와 포스트

14)윤도근,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 문예출판사, 1991, p.16

15)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MOMA, 1977

16)Kenneth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85

17)Albrecht Wellmer,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이주동, 안성찬역, 녹진출판사, 1990

모던 소설]에서, Harry Levin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하였다.¹⁷⁾

탈 근대주의 이론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의미전달체계로서의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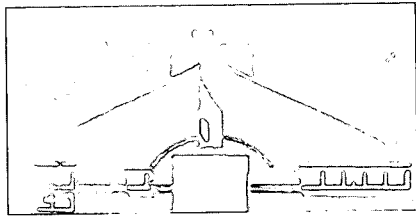
둘째, 맥락(Context)과 대중성을 강조하는 건축이다.

셋째, 공간의 애매성을 지닌 건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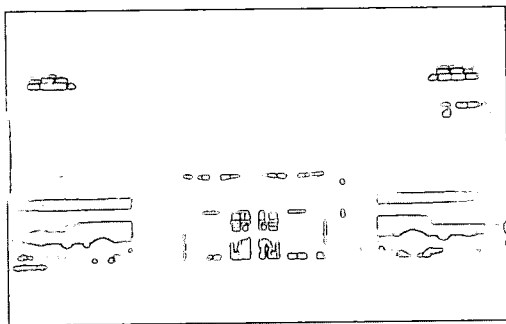
4-3-1. 대중주의(Populism)

대중 예술(Pop Art)이 반복성, 복제적인 표현기법, 그리고 평범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예술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건축도 맥락주의(contextualism), 상징, 은유등을 통해 대중을 포용하여야 한다는 건축사조가 바로 대중주의(大衆主義; Populism)이다. 대중주의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맥락주의(contextualism)와 대중적 이미지를 들 수 있다.

Robert Venturi(1925-)의 대표작인 체스트넛 힐 주택(Residence in Chestnut Hill, 1962)<그림1> 대중주의의 두번째 대표작가로 Charles W. Moore를 들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지각차원이 무시되는 유클리드적 공간개념을 탈피하고 신체와 기억을 통해 체험되는 지각된 장소로서의 공간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Ralph Erskine은 그의 대표작품으로 바이커 월(Byker Wall, 1969-75)과, Robert A. M. Stern은 복고주의와 절충주의적 경향을 띤 건축가로 상투적 수법의 복제보다는 재현과 재수집에 기초를 두고 디자인하며, 기억과 연상에 의해 친숙한 형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절충주의적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그림2>



<그림 1> 로버트 벤튜리, 체스트넛 힐 주택



<그림 2> 로버트 A.M. 스타, 포인트 웨스트 플레이스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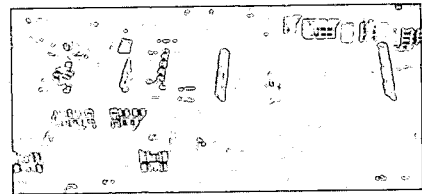
4-3-2. 신헌리주의(Neo-Rationalism)

도시와 건축적, 도시적 규모사이의 유형학적(類型學的)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는 건축사조가 신헌리주의(新合理主義; Neo-Rationalism)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Tendenza(경향을 의미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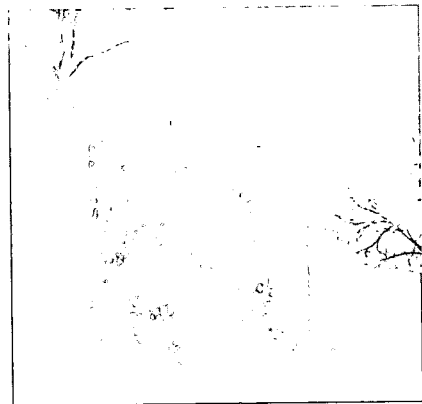
유추된 형태들을 참조하는 '유추의 건축(architecture of analogy)

을 주장하며, 이와함께 단편의 기억들속에서 존재하는 건물형태들을 유형학에 의해 도시적, 문화적 맥락속에서 종합하는 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신헌리주의는 1966년에 발표된 이탈리아 건축가 알도 로씨(Aldo Rossi)의 저서인 [도시의 건축(L'architettura della città)]과 1967년에 출판된 조르조 그라씨(Giorgio Grassi)의 저서인 [건축의 공법원리(La costruzione Logic dell'architettura)]에서 비롯되었다.

Rossi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인 Gallaratese 아파트 단지(1969-73), James Stirling(1926-92)의 슈트트가르트(Stuttgart) 국립미술관(1981)<그림3>, Robert Krier(1938-)와 Leon Krier(1946-) 형제의 베를린 Ritter가 집합주거(1979), Oswald M. Ungers(1926-)는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1981-84), Mario Botta(1943-)의 리바 산 비탈레(Riva San Vitale)주택(1971-72)<그림4> 등의 작품이 이 부류에 속한다.



<그림 3> 제임스 스타링, 슈트트가르트 국립미술관



<그림 4> 마리오 보타, 리바 산 비탈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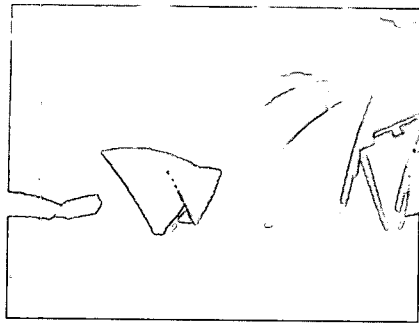
4-3-3. 지역주의(Regionalism)

Regionalism는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특정한 풍토, 기후, 지형, 기술, 문화, 자원등에 대응하여 그 지역환경에 적합한 건축을 지향하는 건축사조이다. Regionalism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장소성의 표현이라는 점이다. 장소의 특성, Identity을 보다 구체화시키며, 전통적, 둘째로 토속적 건축으로 부터 디자인의 소재 및 동기를 차용한다. 셋째로 지역환경, 지역문화, 지역경제, 지역사회등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표출시키고 있으며, 넷째로 획일적, 중앙집중적, 구심적 건축문화를 배격하고 독립적, 지방적, 원심적 건축문화를 옹호한다.

Jørn Utzon(1918-)은 공간에 현수구조의 조형적 형태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앙리 로랑(Henri Laurens)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주로 관심을 가진 원시적이며, 유기적인 현시작용을 가진 건축이었다. 건축구성을 2개의 주요 시각적 요소인 지붕과 기단으로 단순화하고 하늘과 대지를 공간좌표로 삼아서 주위환경속에서 건축

18) Kenneth Frampton, Op.cit., 1985, p.540

의 공명효과를 강조하였다. 그는 합리적, 기하학적 건축과 주위환경을 참조하는 유기적 건축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하였다.(그림5)



(그림 5) 윗존(Jørn Utzon)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4-4. 脫 근대 건축공간-형태의 특성

4-4-1. 脫 근대 건축공간-형태

탈 근대의 공간-형태구성을 보면 역사적으로 독특하며, 전통에 근거를 두고¹⁹⁾, 반원, 반타원, 정사각형, 반순환축 등을 구사하면서 완전한 것보다는 '半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이들의 건축은 정상적 감각을 무색케하는 스크린, 결코 반복되지 않는 주제, 애매함, 조크 등으로 그 평면을 복잡하게 구성하는 공통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대각선의 과용, 과격한 스케일의 변화, 과도한 도식, 변덕스런 구두법을 통한 공간적 트릭, 의사종교적인 성질을 갖는 모델로 대별되어 'Super-Mannerism'이라고 총칭되기도 한다.²⁰⁾

탈 근대주의의 공간-형태는 역사적으로 독특하며 전통에 근거를 두고 zoning)상 무한하거나 애매하며,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가 '비합리적'이거나 변형적이다. 경계선은 종종 불명확하며 공간은 뚜렷한 모서리가 없이 무한하게 확장된다. 탈 근대주의의 다른 양상과 같이 그것은 진보적이지 혁명적이지 아니며, 그래서 그것은 근대주의자의 특질—특히 르 꼬르뷔제에 의해 발전된 '層化(layering)'와 '밀집구성(compaction composition)'—을 내포한다.

한편 '단편(fragment)'의 관념은 탈 근대주의의 공간-형태에 있어 일종의 구성적 방법이 되었다. 절단된 평면에 의해 통합되어지며, 그 주제는 바로크와 Edwin Lutyence로부터 취득된 단편적인 주제들이다. 일반적으로 반원, 반타원, 반정사각형, 그리고 반순환축이 내재한다.

부분적으로 매너리즘의 분산된 공간-형태와 자의식적 애매함과 모순적 공간-형태의 단서와의 유사성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C. Ray Smith는 최근 미국의 건축을 'Super-Mannerist'라고 명명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있는 대각선, 과격한 스케일의 변화, 과도의 도식(supergraphics) 그리고 변덕스러운 구두법 같은 공간-형태적 트릭의 과잉 때문이다.

절충주의 경향은 19세기의 절충주의 신념보다는 종종 기회주의적 동기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으며, 건축가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

하였다. 애매한 모방작품과 함께, Anything(즉 배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Something(즉 내포적인 것)의 방식으로서의 모방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허약한 절충주의에 대조적으로 좀더 강한 근본적 변화를 발전시킬 잠재적 능력이 있는 것같이 보인다. 다양한 형식적, 이론적 그리고 사회적 실마리가 전체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이러한 탈 근대주의의 양식은 비록 전체가 상호 연관된 것은 아닐지라도 아말감에는 근대주의에 대한 여지도 남아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기호론이 대립을 통해서 의미를 주장하며 제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의미의 가능성이 주장되기 때문인 것이다.

급진적 절충주의는 공간 속에서의 대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의미에 있어서도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극도의 단순화와 축소 영역을 내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급진적 절충주의는 모던 건축에 그만큼 반대되는 것으로 多意的이다. 즉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의미를 조합한다.

4-4-2. 脫 근대 건축의 공간-형태의 특성

탈 근대주의자들이 만든 것과 이에 영향을 주는 근대주의자의 공간-형태에는 두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하나는 Sigfried Giedion이 쓴 독일식 공간이론가—17~18세기에 걸친 Francesco Borromini, Guarino Guarini 그리고 Balthar Neumann—의 실제적 연습을 통해 연구된 공간이론이다. 두개 혹은 그이상의 볼륨들이 오버랩 되고, 거대하고 눈부신 영역들은 이미 분리된 영역들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건물의 평면들은 서로 미끄러지듯 연결되며 연속적 움직임만 들어낸다. Fredeick Kiesler의 것과 Theo Van Doesdurg의 결론에 의한 '공간속의 평면들'은 20세기에 와서 뉴욕의 록펠러 센터와 반도시적 내외부가 유니트화된 주거에 이르러 공식화된다. 이것은 상호침투하는 아이디어의 확실한 발전이다.²¹⁾

또 다른 것으로, 근대주의자의 공간과 관련된 관념은 Chicago frame과 Le Corbusier의 도미노 블록으로 부터 발전한다. 그리하여 후기 근대주의의 고도의 등방적 공간으로 결론 지어진다. 탈 근대주의자들은 함축적 공간보다는 제한된 '장소'를 찾고 모호함과 다양함은 창출한다. 그러나 등질적 공간에 대한 필수적인 거절을 하면서도 탈 근대주의는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즉, Frank Lloyd Wright와 르 꼬르뷔제의 특별한 몇몇의 공간적 아이디어—드러진 레이어(Layer), 숨은 공간—는 탈 근대주의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근대주의에 있어서 수학적 형태의 두가지인 상호침투와 펼쳐진 공간은 새로운 유형을 한정하는 탈 근대주의자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었다.

① 이동된 축(The shifted axis)

Robert Venturi의 Vanna Venturi주택에서 그는 이동된 축을 사용하였다. 이모티브는 Robert Stern, Thomas Gordon Smith 그리고 그의 사람들의 작품에 연속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② 탈락과 레이어링(ELISION AND LAYERING)

비대칭적 대칭은 탈락현상의 수사학적 형태로서 병렬적 자연적 결과이다. 탈락된 공간과 탈 근대적 공간적 레이어링의 모호한 예로서 가장 드라마틱한 경우는 Charles Moore와 William Turnbull이 설

21) Charles Jencks, 현대건축의 동향, 태림문화사, 1991, p.200

19) 윌도군, Op. cit., 16

20) C. Ray Smith, Supermannerism, 1982.

또 그레이브스, 아이젠만, 무어의 매너리즘이 1920년대의 구문론과 유사하다는 논리는 Tom Wolf의 (From Bauhaus to Our House), 1976에서 비판적인 어조로 언급되어 있다.

계한 Santa Barbara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 클럽이다.

③ 기울어진 요소와 사선(SKEWS AND DIAGONALS)

20세기 동안에 러시아 구성주의 디자이너들은 사각형의 세계에 강박적인 사선주의(digonalism)를 소개하였다. 사선들은 운동감, 진보, 그리고 기존 르네상스 건축의 안정감에 대한 변증법적인 소개를 의미한다. 사선의 반복과 기울어진 그리드들은 존 헤이덕(John Heiduk)과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같은 후기 근대주의자들에게 의하여 일반화 되었다.

④ 적극적/소극적인 반전(POSITIVE/NEGATIVE REVERSALS)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1966)에서 로버트 벤츄리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립성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켰으며 마이클 그레이브스같은 건축가는 이런 생각이 적극적과 소극적 공간, 솔리드와 보이드(Solid and Void)의 반전을 통하여 모호함이 되게 하였다. 우리는 또 이런 모호함을 리차드 마이어의 정교한 평면에서 볼 수 있다.

⑤ 반 형태와 조직된 놀라움(DEMI-FORM AND STRUCTURED SURPRISE)

탈 근대주의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부분적 단편의 연계된 인식, 브리콜라주(bricolage), 애드 혹시즘(ad hocism), 병행(juxtaposition), 플라주 그리고 반 형태에 있어서 수사적 형태간의 관련을 알 수 있다.

4-5. 후기 근대 건축공간-형태의 이론 및 특성

4-5-1. 후기 근대주의의 대두

'후기 근대(Late-Modern)' 이란 말은 흔히 '탈 근대(Post-Modernist)' 라고 명명되어진 무분별한 그룹들로부터 창조적인 건축가들의 한 그룹을 구별하는 편리한 표시로서 1977년 생겨났다. 탈 근대건축은 '이중-코드(code)'인데, 받은 근대이고, '하나의 코드'로 정의된 후기 근대 건축은 오락과 심미적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서, 과장된 구조와 빌딩속의 기술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공간-형태를 취한다.

결론적으로 후기 근대주의와와 탈 근대주의는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의사소통이라는 건축의 근본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후기 근대주의가 건축적 언어의 미학적 측면에 강조를 하는 반면, 탈 근대주의는 더욱 풍부하게 말하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습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둘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도전적인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후기 근대주의자의 접근방식은 이상주의라기 보다는 실용적이며, 근대의 여러 양상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초-근대적이다. 이들은 극도의 논리, 순환계통 및 기계장비에 대한 극도의 강조, 기술공학의 양식적이고 장식적 사용, 국제주의 양식의 복잡화, 관습적인 형태언어라기 보다는 추상적 형태언어의 사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 매너리즘의 근본적인 특성에는 항상 극초-근대화화 양식화가 부가된 것이다.

후기 근대주의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그 접근은 관념론자나 근대의 극도의 논리, 극도의 유평적이며 기계적인 강조, 틀에 박히고 장식적인 테크놀러지의 사용, 국제주의 양식의 복잡성과 형태의 편리한 언어와 추상성과 같은 양자의 과장적 표현으로 보이기도한다.

4-5-2. 후기 근대주의의 수사학(修辭學)

① 제 2기계 미학과 은유

첫번째, 기계미학의 특징들은 극도의 논리에 대한 강조, 순환, 기계적 장치, 기계과학과 구조를 향해 훨씬 더 많이 수용되어 진다. 두번째, 기계미학의 자연적 경향은 훨씬 뒤가 아닌 외부에서 인간과 뜨거운 공기의 순환적 시스템, 곤충과 같이 골격적인 외골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후기 근대주의는 어떤 의식적 은유나 미소가 아닌 변화의 신진대사적인 이론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경향이다.

② 극도의 분절, 절분법, 대비

극도의 분절은 명백하게 그 자체의 미절적 특성과 대위법, 단음과 전음은 흥미로운 운용이며 그것은 후기 근대주의가 바로크의 복잡성과 19세기 모순으로 태동하는 움직임으로 받아 들여 진다. 극도의 분절은 자연, 대위, 스타카토, 떨림 등과 더불어 즐겨 사용되는 방식이다.

③ 구조, 장식으로서의 건설

아주 거대한 구조적 장식주의자들은 시카고의 미스주의 학교출신들이다. 매우 단순한 논리적인 부분들은 극도로 후기 근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반복되고 있으며 트러스, 휘어진 유리판넬, 반투명적인 섬유, 유리판넬, 흰색과 I-빔과 같은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색깔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 복잡한 단순성과 극도의 반복

모던 건축이 정제된 단순성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단순하고 정형적인 형태들로 정화해나간 반면, 후기 근대주의는 이러한 전반적인 단순성을 유지한 채 비정형성과 복잡성을 가진다.

극도의 반복은 또 다른 후기 근대적 기법으로, 생산적인 장치로서 반복을 정당화해왔다. 근대건축이 반복을 생산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했던 반면, 후기 근대는 그것을 과장해 냄으로써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⑤ 매끄러운 표피, 절판 효과

모든 심미적인 효과는 보다 강한 유리벽들의 발달, 조립에서 포함되는 조그마한 클럽, 유리구조 편의 여러가지 새로운 수단과 더 얇은 개스킷 의해 표현되어진다. 그들은 후기 근대의 커튼월과 자체의 강한 수직적 분할, 그 자체의 표피와 골격으로 현대적으로 부터 아주 다른 매끄러운 표피막을 가지게 된다.

⑥ 조각적 형태와 과장법

후기 근대주의자들은 더 순수하게 조각적 방향을 취했다. 결과들은 너무 지나치게 흥분되고 혼란스러운 수사학적 과장법을 사용했고, 과도한 형태들은 그들의 장대하고 압도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다.

4-5-3. 후기 근대 건축공간-형태의 특성

후기 근대 건축공간-형태의 특징은 장식으로 전환된 구조, 단순한 상자형 벽체, 그리고 비인간적인 의뢰에 의하여 공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 수사적 과장은 조각적 공간-형태와 극도의 명료성과 제 2기계

미학의 공간-형태로 나타난다.

① 명료성과 극도의 분절

특징적으로 후기 근대주의자들은 네델란드 구조주의의 작품속에 표상학적인 문체인 짜임새와 도시적 표상학으로서 그들 작은 세포들의 반복을 추구하였다. Van Eyck의 Children's Home, Hertzberger의 Central Beheer Office Building과 Old People's Home(1974), 등에서 근대주의를 통한 인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써 과장된 강조가 구성에서 구조적인 분절을 강조하고 있다.

② 슬릭-테크

얇은 강철관, 광택이 있는 알루미늄, 반짝거리는 플라스틱, 빛나는 에나멜, 그리고 판금유리는 독특한 물질의 것들로 가끔 번들거리는 광택과 깔끔한 스푸마토(마림법)를 이루는 가장 밝고 어두운 가연성 혼합물은 뚜렷한 변화없이 서로다른 것으로 혼합되어 진다.

근대주의의 문제점들 중에서 후기 그리고 근대주의(Late and Post-Modernism)를 건물전체로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확대와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표화하는 거대한 광경이었다. 후기 근대주의자들은 대체로 도식화된 특징을 유지해 왔으나 극소 만족주의자의 표현에 의해 단순성을 선호해 왔다.

③ 하이테크 기법

하이테크 건축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i) 그 주된 건축가들은 영국에서 나왔다. ii) 앵글로색슨 계통 기술 애호가들이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iii) 하이테크는 새로운 생산품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컴퓨터 산업이나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의미에서의 하이테크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는 수공업 전통의 연장으로서, 기존의 산업체계를 변형하여 값싸고 일회용의 (미적일지는 몰라도) 해결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 2〉 하이테크 건축의 특성

하이테크 건축의 특성	내 용
내외부의 전도	건물의 살비와 구조체가 거의 항상 외부로 노출되어 장식이나 조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과정에 대한 중시	하이테크 건축은 건설과정, 건물의 (공법, 기능, 내용), 그리고 건물의 결합부, 결합방식, 배관 등에 대한 강조와 명료성을 지니고 있다. 과정에 대한 예찬은 기계장치와 이동크레인이 고전적 건축에서의 페디멘트와 키스톤처럼 흔하게 나타난다.
투명성, 중첩, 이동	이들 세 미학적 특성은 거의 예외없이 극적으로 반투명, 투명유리의 광범위한 사용, 덕트, 계단, 구조체의 중첩,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강조는 하이테크 건물의 특징을 이룬다.
밝고 단조로운 색조	각각 다른 구조체와 살비를 구분하기 위해 밝은 색들을 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부분들은 쉽게 이해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다. 후에 채색방식을 더욱 단순화시켜서 은빛 미학을 향해 나아가며, 덕트들과 구조체는 회색조로 통일된다. (예 : 풍파두 센터와 인모스 공장)
선세공 처럼 경쾌한 인정부재	얇다란 강철 교차 브레이싱은 하이테크의 도릭기둥으로 시각적 표지일 뿐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이는 포스터와 로저스가 1967년 릴라이언스 통제센터 빌딩 이래 계속 사용되어 왔다.
과학문화에 대한 낙관적 신념	하이테크 건축 이전에는 발견을 기다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미래주의자의 희망이 있다. 이는 그 구성원칙보다는 재료, 색채, 장치들을 사용하는 직업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또한 대부분의 하이테크 건물들은 아무런 전이과정 없이 지면과 급작스레 만나고 있다. 최상의 디자인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낙관이다. 하이테크 건축이 주로 스타디움, 스포츠 홀, 공항, 공장, 대규모 복합연구센터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④ 초감각주의

Florentine Adolfo Natalini가 이끄는 Superstudio와 피렌체의 디자이너 그룹인 Archizoom As-sociate는 밀폐된 환경의 은유적 영역

을 찾아내고 있다. 그런고로 문제는 형식적 구조인 만큼 인간을 건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4-6. 후기 근대 건축공간-형태의 표현 특성

60년대의 두드러진 건축 개념은 거대한 상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지 위해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두가지 건축공간-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밝혔다.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실용적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단지 극단적으로 슈퍼마켓과 거대한 구조물을 일컫는다.

① 극단적인 등방성 공간

Superstudio와 Archizoom 은 동일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것으로서 이런 공간적인 형태를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극도의 등방성의 공간은 치밀하고 탐욕스러운 기호인 이중적 협상에서 도출된다. 그것은 또한 두개의 수사학적 고안의 과잉과 단순성의 효과적 사용을 통하여 그 힘을 얻는다. 후기 근대 건축 공간은 이렇게해서 확립되어지고 그리드로 끝없는 등방성의 주변은 지지되고 꼭대기와 아래를 서비스로 한다. 이런 공간은 변화하는 액티비티의 플라주를 가지고 있다. 슬로건과 침묵은 슈퍼스튜디오의 축소적인 이미지들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들의 계속적인 운동은 유모어가 풍부한 방법으로 그리디즘을 시작하고 있다. Archizoom의 No-Stop도시는 시아의 개념적인 한 점으로부터 이런 공간의 무분별한 동질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통계적인 평균을 가진 형태로 종이벽과도 같은 것이다.²²⁾

② 끊임없는 공간후레이밍의 반복

구조적 요소로 극도의 반복은 고딕 격자무늬, 대규모 빌딩에 있어 스케일을 융해시키게 하는 장식과 같이 채색된 하얀 것이 되었다. 그런 두 지역사이에 시각적이고 재료적 분리를 만드는 빌딩의 기본적인 편리를 반복한다. 이런 모순과 역설은 어디에서나 명백한 같은 모듈의 요소에 의해 훨씬 더 고양되어진다. 부분들은 전체가 되었고 대유법적이며 모순어법 양자의 예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런 극도의 방법에서 다른 특성의 끊임없이 이동적 시야를 주는 것이다.

③ 표피로 싸여진 볼륨

명백한 매스, 밀도를 파괴하므로써 여분의 파사드를 만드는 것에 의해, 모퉁이 파사드를 만드는 것에 의해, 그리고 필립존슨이 이루어 왔던 것으로서 깨진 것, 또는 단편적으로 수직적 파사드에 의해, 또는 그 양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나르시시적 기호로서 은유적이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용한다. 최근에 그것은 그 자체의 매우 본질적 특질로서 모순어법적이며 진실 왜곡에 극도의 대비를 제고한다. 그것은 진실하게 자연에 반영하거나 동시에 trompe-l'œil(실물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림; 눈홀림)와 왜곡을 낳는다.

5. 결론

건축형태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간이

22) Charles Jencks, New Moderns: From Late to Neo-Modernism (1990): 네오-모던건축, 조희철의 역, 공간예술사, 1992, p.107

공간을 에워싸므로써 그 속에 공간을 포함하게 되고 구체화 되어진다.

건축은 둘러싼 요소들의 형태일뿐만 아니라 폭, 길이, 높이의 종합에 의한 공허부 자체, 즉 에워싸인 공간에 의해서 그 존재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은 건물내에서 움직이며 연속적인 관점에서부터 건물을 체험하게 되므로 건축형태나 공간은 4차원을 나타내게 된다. 건축에서의 기능과 예술과의 밀접한 관계는 다른 시각예술과 건축을 구분짓게 해 준다. 건축은 기능과 미적인 면에서 모두 관계하고 있으며, 건축공간-형태로서 시각, 촉각, 운동감각 등에 의해 경험되는 극히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형태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건축을 경험하게 되는데 건축공간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두가지 이유는 공간이 내적으로 질서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공간으로부터의 극적인 연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공간은 곧 개념적이고도 실존 공간이다. 어떤 광장의 공간은 우주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지 않다. 힐러(Hiller)와 헨손(Hanson)은 자신들의 저서, 「공간의 사회논리학(The social logic of space)」에서 사회적 체계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면서 사회는 내부의 역학관계를 통해 공간 질서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사회의 공간적 체계를 살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조직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축의 형태적 취급에 대해 반 데 벤(Van de Ven)은 공간의 중요성과 같이 물질적인 형태도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질적 형태와 그 의미와의 전달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의 복고적 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그 이유으로써 이용자는 건축형태라는 외부형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과 전달내용 그 자체로써 건물의 외피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든다.

그러나 건축의 내부공간을 들어설 때, 우리의 지각은 벽, 바닥, 천정 등의 형태를 3차원의 통일체로서 동시에 포착하게 된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건축의 매스와 형태이지만에 그것에 의하여 창조된 공간들도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 공간과 형태의 단순한 일원체는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며, 공간-형태라는 복합체가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건축의 문제는 공간과 형태의 독립된 관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간만으로는 건축이 일반적인 공간예술과의 구분이 불가능하며, 매스, 형태 그리고 나아가 재료와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각시대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세계관까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간예술로서의 건축이 아닌 건축공간-형태로서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건축공간-형태의 이론과 변천을 고찰하고 공간-형태의 공통적 특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건축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인자는 산업혁명과 막스 베버(Max Weber) 이래로 서구철학의 근간을 이루어온 합리화란 개념이었다. 현대화 또는 합리화의 과정은 단지 부르주아 계급에게만 부여된 혜택으로 노동자 계급은 전대미문의 최저의 자존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처참함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짝뜨게 되

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문화, 예술적 패러다임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 같은 시대적 이데아도 근대건축이후 현대건축까지의 시기에도 반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간개념과 형태개념의 분리에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근대초기의 기업의 합동 독점에 근거한 자본주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단계는 기술과 그 규모의 발전 확대, 구 지배 계급의 몰락과 근로대중세력의 대두와 사회주의 정신과 정책, 세계대전후의 국제주의 대두, 산업혁명, 그리고 생산방식의 변화와 대량생산,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재료의 발견 등에 의해 전체적인 기초를 형성하였다.

셋째, Charles Jencks와 Kenneth Frampton 등을 필두로 근대건축이 보여준 부정적인 면들을 일소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현대건축은 탈근대 혹은 후기근대에 대한 논의가 열기를 북돋우게 되었다. 현대건축의 형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다.

(1) 탈근대 건축의 형태이론의 특성은 첫째, 의미전달체계로서의 건축, 둘째, 맥락(Context)과 대중성을 강조하는 건축, 셋째, 형태의 애매성을 지닌 건축을 표방하면서, 역사적으로 독특하며 전통에 근거를 두고 조형 상 무한하거나 혹은 애매하며,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가 '비합리적'이거나 변형적이었다. 경계선은 종종 불명확하며 공간은 뚜렷한 모서리가 없이 무한하게 확장되었다.

(2) 이들 형태의 특성은 이동된 축(The shifted axis), 비대칭적 대칭을 통한 자연적 결과로서의 탈락과 레이어링(Elision and Layering), 운동감, 진보, 그리고 기존 르네상스 건축의 안정감에 대한 변증법적인 소개를 의미하는 기울어진 요소와 사선(Skews and Diagonals), 반전을 통한 모호함을 표현하는 적극적 / 소극적인 반전(Positive / Negative Reversals), 브리콜라주(Bricollage), 에드-혹시즘(Ad-hocism), 병행(Juxtaposition), 플라주 수법에 의한 반영태 등으로 표현되었다.

(3) 후기근대 건축가들의 접근방식은 이상주의라기 보다는 실용적이며, 모던의 여러 양상들을 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초-모던 적이 있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그 접근방법이 관념론이나 모던의 극도의 논리, 극도의 유평적이며 기계적인 강조, 틀에 박히고 장식적인 테크놀러지의 사용, 국제주의 양식의 복잡성과 형태의 편리한 언어와 추상성과 같은 양자의 과장적 표현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우선 기계미학의 특징들을 극도의 논리에 대한 강조, 순환, 기계적 장치, 기계과학과 구조를 향해 훨씬 더 많이 수용하였다. 또한 기계미학의 자연적 경향은 외부형상에서 인간과 뜨거운 공기의 순환적 시스템, 곤충과 같이 골격적인 외골격을 가졌다. 그러므로 후기근대는 어떤 의식적 은유나 미소가 아닌 변화의 신진 대사적인 이론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극도의 분절, 절분법, 대비, 구조·장식으로서의 건설, 복합적 단순성과 극도의 반복, 매끄러운 표피·절판 효과, 조각적 형태와 과장법 등에 의해 후기근대 건축은 전반적인 단순성을 유지한 채 비정형성과 복잡성을 나타내었다.

(4) 명료성과 구성에서의 구조적인 분절의 강조에 의한 형태와 이것의 시각적 확장을 위한 슬릭-테크 등의 특성과 내, 외부의 전도, 과

정에 대한 중시, 투명성, 중첩, 이동, 밝고 단조로운 색조, 선세공처럼 경쾌한 인장부재, 과학문화에 대한 낙관적 신념 등의 하이-테크적 의미에서의 특성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므로 후기근대는 형식적 구조인 만큼 인간을 건축에서 자유롭게 하여 초감각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탈근대와 후기근대 건축은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의사소통이라는 건축의 근본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후기근대 건축이 건축적 언어의 미학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형태를 표현하는 반면, 탈근대 건축은 더욱 풍부하게 말하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습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이 두 건축세계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도전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1. 윤도근,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포스트모더니즘과 건축, 문예출판사, 1991
2. 張基權 譯, 老子,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5
3. 조명한, 심리학 있어서 Gestalt 이론, 홍익 13호, 홍대, 1971
4.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1980
5. Fritjof Capra, The Tao of Physics, 이성범 외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79
6. Paul Frankl, 건축형태의 원리, 김광현 편역, 기문당, 1990.
7. Sigmund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5th edition. Harvard Univ. Press, 1967
8. Sigmund Giedion, The Eternal Present: 'The Beginnings of Architecture', The Clarendon Press, Oxford, 1964.
9. Sven Hesselgren, Man's Perception of Man-Made Environment, Pa: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975
10. Charles Jenck, 'Late 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London, 1980
11. Charles Jenck,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Academy Editions, London, 1984
12. Charles Jenck, 'The Language of Post - 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London, 1984
13. David Katz, Gestalt Psychology : "It's Nature and Significance", New York, Ronald Press, 1950
14. Heinrich Klotz, 이용재 역, 'Post Modern Visions', 집문사
15.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6. V. M. Lampugnai, '20세기 건축가와 사조', 김문덕역, 국제, 1988
17. Editors by Ann Lee Morgan, 'Contemporary Architects', Colin Naylor St. James Press, London, 1987
18. edited by Andreas Papadakis, Catherine Cook, Andrew Benjamin, DECONSTRUCTION, Omnibus Volume, Academy Editions, London, 1989
19. Paolo Portoghesi, 'Postmodern', Rizzoli, New York, 1983
20. Christian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산업도서출판공사, 1985
21.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MOMA, 197722
22. M. Wertheimer, 'Laws of Organization in Perceptual Form', A Source Book of Gestalt Psychology (ed., D. Willis, Ellis), Routledge & Kegan Paul, 1974
23. 'Architectural Design', 9/10-1984, 11/12-1987, 3/4-1988, 5/6-1988

(접수 : 1997. 11. 8)